

수많은 생각의 변환점을 지나오며 부쩍 성장했던 날들

부제 : 넓지만 연결되어있는 세상 속 최선을 다해 살아갈 용기

입시를 마치고 독일언어문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나는 막연하게 교환학생을 대학 생활을 해내며 실천할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기에 낯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흥미도 컸다. 전체적인 이 언어의 분위기가 취향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와 차별화되는 다소 강한 발음도 매력적이었고, 설명하기 모호한 개념들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특이한 단어들이 많은 점 또한 공부하는 걸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었다.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니 어느 정도 독일어로 된 문장들을 이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정말 기뻐다. 그렇게 느꼈던 성취감들은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끔 했다. 그렇게 독일어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수전공을 택하고 부가적으로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하며 정말 숨가쁘게 스무 살과 스물한 살을 보냈다. 그리고 스물두 살이 되고 3월, 마침내 독일에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하여 드디어 생활해볼 수 있게 되었다.

파견 국가와 학교를 선택한 후 노미네이션 절차까지는 국제협력본부에서 안내해준 바를 그대로 따르면 되었지만, 준비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시점은 그 이후부터였다. 학기를 이수하길 원하는 대학에 직접 등록 신청서를 보내는 것과 내 보금자리가 되어 줄 기숙사를 선택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은 독일의 대학 도시로 유명한 예나이다. 도시 전체에 대학 건물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기숙사 건물들 또한 곳곳에 나누어져 자리 잡고 있다. 어딜 가나 그렇듯 여기도 깔끔한 시설과 이동하기에 편한 위치의 기숙사가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 매우 멀고 낯은 곳들도 있다. 내 마음대로 지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는 없다. 신청서를 제출한 선착순으로 기숙사를 배정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곳이 있다면 파견 예정 대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기숙사도 신청해버리는 것이 마음에 드는 안락한 방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의 경우에는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몰라서 뒤늦게 기숙사에 대해 찾아보았었다. 당연히 신청도 늦은 편이었다. 대체 어디가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졸였다. 결국 시설이 훌륭하다고 유명한 곳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조금 오래된 건물이지만 방이 넓고 학교와 시내에 인접한 위치여서 나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래도 여기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 많으니 기숙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찾아보자.

현재 시점으로 나는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대학교에서 독일에서의 두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다. 파견 학기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대학으로 갈 것인지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고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교환학생을 먼저 다녀오신 선배들의 보고서들을 정말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렇게 알 수 있었던 팁들이 대학을 결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문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독일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기에 나는 효율적인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 예나대학교는 독일 내에서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Deutsch als Fremdsprache) 전공’으로 매우 유명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교환학생들을 위해 따로 코스가 마련되어 있고,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누고 그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내가 바랬던 바와 잘 부합했다. 시험은 예나대학교에 직접 가서 보게 되고, 그 전에 관련 공지를 여러 번 해 주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예나에서 공부하고 일상을 영위해내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 전 세계의 유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이 몰리는 대학 도시라는 명성답게 독일인들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또 교환학생으로서의 코스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의 독일어 단계에 잘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했다. 언어를 습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 사람들을 접하며 대화를 나누고 보고 친분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다. 그러나 교환학생들끼리만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수업 내에서 독일인들을 접할 기회는 적었다. 만약 함께 강의에 참여하면서 현지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이 큰 사람에게 예나라는 도시의 특성은 단점으로 와닿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초반에는 생각과 다른 분위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수업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보며 독일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기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며 적응하기 시작했다. 예나에는 한국어 슈탐티쉬 (Koreanisch-Deutscher Stammtisch)가 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어 주었다. 먼저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독일인 친구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에서 열심히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해 찾아가 보고 대화하려 노력했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내공으로 변해 낮은 나라에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때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현지에서 경험을 통해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책에는 나오지 않는 독일의 문화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내가 만든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같은 뜻을 구사하는 방법 등을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해보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장을 돕고 있다. 아마 교환학생으로 지낼 때뿐만 아니라 인생에 전반적으로 해당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다른 때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끔 했다. 그것이 타국에서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지금은 곧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는 이번 기회 덕

분에 다시금 곱씹고 다짐하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살고 싶어졌다.

교환학생으로써의 생활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까지가 가장 힘들었다. 초반에 어떤 부분이 가장 버겁게 느껴졌는지 생각해보니 역시 언어였다. 나름 전공 수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좋은 성적도 받아 왔었는데 막상 실전 상황에 들어오니 아는 단어도 잘 들리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표현들도 머리에서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말한 것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 때는 절로 위축되기까지 했다. 독일어를 공부하러 온 거였는데 두려움 때문에 독일어로 말하지 않으려 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부터 나는 그냥 무작정 말해보자고 결심했다.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말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대강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소통을 시도했다. 그렇게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시간 또한 지나면서 예나라는 도시의 분위기에 내가 맞물릴 때쯤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다른 나라에 처음 와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 위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거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삼 년 뿌리 앓는다’는 속담이 있다. 낯선 환경을 익숙하게 여길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나무가 뿌리 내렸던 땅을 떠나면 기운을 잃듯이 우리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이기에 한 순간에 외국 생활을 완벽히 해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여기서 적응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이 당연한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 사소한 실수들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기도 했다. 이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한다.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조차 칭찬하기 마땅하며, 외국 생활을 해보자고 마음먹은 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어나 문화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슬퍼질 때면 내가 여기서 해낸 일들,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들이어도 떠올리며 자신을 스스로 다독여주는 것이 건강한 마음가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되돌아보면 정말 작은 일들에 자신감이 쉽게 퇴색되는 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랬던 시간은 절로 지나가고 어느 순간 부쩍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면 나무도 뿌리를 옮기면 삼 년이 아프다는데 내가 지금 힘든 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깊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강인해져 있을 것이다.

교환학생을 통해 얻은 것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어 실력의 향상, 특별한 인연들, 잊지 못할 값진 경험들과 깨달음들이다. 먼저 현지에서 언어를 공부하며 스스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예나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만날 기회가 없었을 사람들과의 인연은 정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마음 속에 오래 남을 경험들은 예나에서의 삶과 주변 국가들에서의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독일 도시들과 프랑스, 런던, 라트비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수도들에 다녀왔다. 유럽의 교통권들은 일찍 살수록 저렴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여 구매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다른 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 나에게 가장 잊지 못할 여행 장소는 라트비아였다. 왕복 비행기를 약 27유로 (한화로 3만 5천원쯤)정도 내고 다녀왔던 기억이 있다. 나중에 다시 유럽에 여행을 와도 이곳에는 올 기회가 없을 듯해서 가보기로 결정한 여행지였다. 동시에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갔던 나라이기도 하다. 라트비아의 수도는 리가인데 규모가 크지 않고 관광객들도 많지 않았다. 라트비아어로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채 갔던 여행이었는데 통하지 않는 언어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움을 여러 차례 받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다. 무엇을 꼭 하겠다는 제대로 된 계획을 짜지 않고 무작정 발이 닿는 곳을 따라 걸어 다닌 여행이었다. 유명 관광지를 무조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유를 만끽해보자는 마음이 컸다. 공원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고 바닷가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내내 같은 노래를 반복하여 재생하기도 했다. 너무나 추웠던 유르말라의 해변도 두 번이나 방문했다. 지는 노을과 더불어 찾아온 분홍빛의 하늘과 발트 해의 조화가 묘사할 단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워서 일부러 해가 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며 분홍 하늘을 훨씬 오래 보려고 애써보기도 했다. 그때는 그저 순간을 즐기자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해서 몰랐는데 이러한 방식의 여행은 정말 이때여서 가능했구나 싶어 더욱 라트비아에서의 짧은 날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해외에 갈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자 가장 인상 깊은 나라나 장소가 생길 것이다. 즐길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여행을 다녀보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한다.

나는 정말 바쁘게 대학교 1, 2학년을 보냈지만 사실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환학생을 왔다. 독일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진로가 잡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루하루가 참 바빴지만 무언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침 아빠가 교환학생은 젊은 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힐 좋은 기회이니 꼭 도전해 보라고 제안하셨다. 외국에 가서는 자그마한 일상의 일들에서도 배울 게 많을 테니 더욱 넓은 세상을 접하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라는 조언도 해주셨다. 그 말에 대해서 독일에서 지낸 약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새롭게 곱씹어왔던 것 같다. 정말 이곳에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다. 뚜렷한 길을 정해서 외국행을 택해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내 또래에 모두 이미 진로를 정해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의 대화는 자꾸 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자연스레 생각해보게끔 했다. 사실 독일은 한국과 전혀 동떨어진 장소라는 느낌을 자주 받곤 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약 3주 정도 다시 돌아갔던 한국에서 여전히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누어보며 어찌면 몸의 거리만 멀어졌을 뿐이지 마음은 항상 이어져 있었다는 걸 체감했다. 이는 곧 드넓은 세상 속 어찌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와닿았다. 깨달은 순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범위를

넓혀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각색한 생각의 변환점들을 넘어왔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세상은 정말 크다. 그 거대함을 잘 들여다보면 2022년 기준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살아가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구의 광활함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럴 계기가 마땅치 않았고 바쁜 일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데에 온 집중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에 오니 한국에 있을 때와 다르게 나만의 시간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무언가에 쫓겨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그전까지의 일상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놓쳤던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점점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졸지 않기 위해 마시는 커피가 아닌 본연의 맛을 느껴보고자 즐기는 커피와 오후 2시의 한적한 공원에서의 피크닉, 서로의 서툰 외국어와 표정으로 진행되던 즐거운 대화들이 쌓여 생겨난 특별한 관계들은 물론이고 가끔은 타향 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서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날들까지도 모두 돌아보니 의미가 있었음을 안다. 짧은 날의 하이라이트를 언제로 고르고 싶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을 얘기하지 않을까? 잊지 못할 2022년을 통해 참 많이 자랐다고 느낀다. 올해 얻은 경험들과 생각들로 앞으로의 인생을 더 탄탄하게 다져볼 것이다.